

데이지와 미키에게 피자 먹는 법 배우는 우리 아이들

생소한 외국 음식과 이름 그대로 사용, 우리 실정 안 맞고 편식·잘못된 언어습관 유발

세 살난 딸을 둔 주부 이미경 씨(33. 강서구 화곡동)는 며칠 전 그림책을 고르러 서점에 갔다가 유아그림책의 황무지인 우리 실정을 절감했다.

이유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밥은 먹기 싫어하고 우유만 찾는 딸아이가 비만기까지 있어 걱정이 되었던 그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유아용 그림책을 통해 버릇을 들이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몇 가지 종류의 책들에는 '맛있는 음식'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제목에 한결같이 사탕·케이크처럼 먹지 않아도 좋을 음식들만 나열돼 있었다. 이 씨는 "그림책을 본 후 아이의 식습관이 더욱 나빠질까봐 그대로 나와버렸다"고 한다.

주부 최혜경 씨(31. 은평구 역촌동)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 책을 골라주려던 그는 유명 출판사가 제작한 그림책이 온통 외국어 일색인 것을 알고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유아들의 식습관과 언어생활을 유도해 주는 그림책이 없

다. "지금대로라면 오히려 아이들의 습관을 잘못 들일 우려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림책에 관심을 가져본 주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현재 서점에는 0~5세용 그림책으로 10여개의 출판사가 20여종류 이상의 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옛날이야기식의 줄거리 위주로 꾸며진 것을 제외하면 대개가 이 시기의 생활습관과 언어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과 그에 해당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림책들이 유아들의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 시키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언뜻 살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매운맛 피자과 신맛 나는 오이피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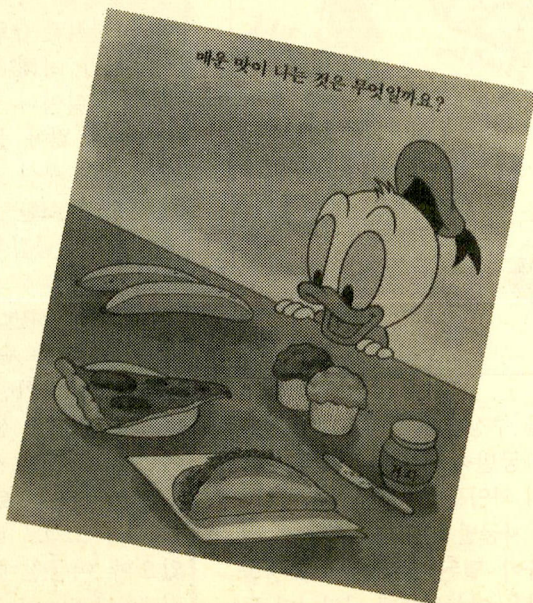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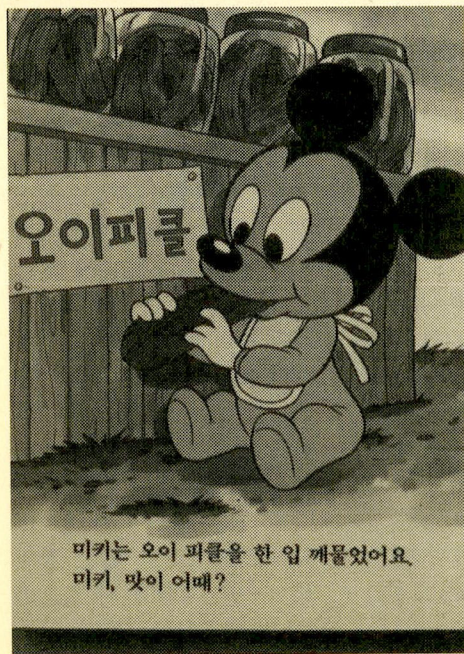
'간식편' '맛있는 음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햄버거, 콜라 등 비만을 유발하고 충치를 생기게 하는 것들이고 그 많은 책 중에 밥, 김치, 떡 등 우리 고유의 생활 음식이 나

유아교사, 부모 주축돼 그림책 모니터 구성, 감시 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의 출판사와 판권계약을 맺고 번역, 출간한 그림책들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계약을 맺은 (주)계몽사는 <디즈니베이비>라는 제목으로, 도서출판 지경사에서 <디즈니아기그림책>을 내놓고 있고 외국의 유명 작가인 덕브루너의 <브루너아기그림책>도 지경사와 문공사에서 번역돼 소개되고 있다.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들 그림책에선 '매운맛이 나는 음식'으로 피자, 머스터드소스와 같은 것들이 소개돼 있고 '신맛이 나는 음식'으로 오이피클이 나와 있는 등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그림책의 주인공이나 사물이 영어발음 그대로 돼 있어 실정에도 안맞

<브루너아기그림책>에서는 배를 '요트' 또는 '보트'로, 손가락 그림에는 '스푸운', 포오크로 표기돼 있다. 번역 그림책의 경우 음식 이름이 영어발음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등장인물도 '도널드와 데이지, 미키가 시장에 갔어요.' '어릿광대 처클스가 너구리 리키의 키를 재고 있어요.' '애, 구피야 이 닭아이지.' 처럼 생소한 외국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다.

놀이방 유아교사인 김진숙 씨(26. 성동구 구의동)는 "편식하지 말고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말하다가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다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며 "아이들 교육은 생각 않고 유명세에만 의존해 마구잡이로 번역하는 출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교사와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유아그림책 모니터를 구성하고 감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최창희 기자>



◆번역, 출판된 유아그림책의 경우 우리의 실정과 안 맞아 유아들의 식습관,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